



심종두를 구속하라!

창조컨설팅 심종두-김주목 23일 선고

유성기업, 콘티넨탈, 보쉬전장을 포함해서 전국 168개 사업장을 자문하며 14개의 노조파괴를 기획-실행한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와 전무 김주목에 대한 1심 선고가 8월 2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 검찰은 6월 19일에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 엄벌을 내릴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한다.

유성기업 포함해서 전국 168개 자문, 14개 노조파괴

이명박정부 시절, 노조파괴가 기승을 부렸다. 자본은 불법 법률자문(창조컨설팅)-용역강패-노동부-경찰-검찰-국정원-청와대로 이어지는 뒷배경을 믿고 노조파괴 칼날을 휘둘렀다. 창조컨설팅이 자문한 회사만 전국 168개에 달하고, 그 중 직접 노조파괴를 자행한 사업장도 14곳이나 된다. 가장 유명한 사업장이 바로 우리 지부의 유성기업이다.

2011년부터 이어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고 유성기업 사업주가 구속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창조컨설팅은 여전히 이름만 바꾼채 활동하고 있다. 심종두-김주목 같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조파괴 공화국이다. 8년째 고통받고 있는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법원은 이 범죄자들에게 가장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21(화) 15시, 서울 노동청으로 간다!

민주노총은 23일 선고를 앞두고, 21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노동부 개혁위원회 권고안 조차 거부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데 미온적인 노동부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이다. 노조파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우리 지부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심종두-김주목 엄정처벌을 외치러 서울 노동청으로 함께 가자.

창구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 민주당사 앞 1인시위

금속노조가 전국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조법 개정 움직임이 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노조법 개정 노력했다는 생색만 내고 국회 핑계 대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지부는 8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지회별로 돌아가며 대전 박범계 의원 사무실 앞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지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창구단일화 폐기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1인 시위와 정기국회 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주요 일정 *

□ 노조파괴 공모 특별조사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8/21(화) 15:00 서울 노동청 앞

□ 민주노총 임시중앙위

8/22(수) 14:00 서울 용산철도회관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선전전

8/23(목) 07:00 대전 보쉬앞 네거리

8/24(금) 17:00 LG화학 오창공장